

지도자란 ?

〈지도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의 성서나 교회 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어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지도자라는 말은 분명히 교회 밖에서 유래된 말임에 틀림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도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민중을 지도했었다는 것만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지도자란 천하를 호령하며 선두에서 전진하는 풍운아적인 지도자가 아니다. 현대의 지도자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무언의 소질 (Quality implicit)을 소유하며 사랑을 동기로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지도자의 사랑의 동기라는 적극적인 면에는 또한 두려움이라는 소극적인 동기도 따른다. 지도자는 남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두려워한다. 남에게 대한 두려움이란 남들이 자기에게 어떠한 반응을 표시하는가에 대한 것이요, 자신에게 대한 두려움이란 그들의 반응이 부정적이거나 자기를 배척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런데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동기에는 언제나 이러한 두려움의 동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랑과 두려움 동기로 하는 지도자의 행동은 어떠한 것이어야 할 것인가?

한 마디로 해서 그것은 대화를 할 줄 아는 일이다. 지도한다는 일은 인간 관계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므로 거기에 반드시 대화가 따르기 마련이다. 대화 없는 지도란 있을 수 없다. 독백에서는

오직 귀족주의 혹은 온정주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일방 통행적인 맹종일 따름이다.

지도자는 언제나 만능일 수는 없다. 지도자가 자신의 한계를 지켜야만 지도를 받는 사람도 자기의 한계를 지키는 일을 습득하게 된다.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는 권위의 소유자가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있는 지도자이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만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한계를 존중해 주며, 나아가서는 피차간의 협동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